

## 6

## 오오진 (應神) 계의 백제왕족:

## 중단과 회복

오오진은 니토쿠(仁德), 리추우(履中), 한제이(反正)에 의해 차례로 계승되었다. 하지만 그 다음번 계승때에는 무엇인가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 했었던것 같다. 왜냐하면 한제이가 죽고나서 어려해가 지난 다음에야 비로서 야마토 조정의 대신들이, 한제이의 후계로, 인교오(允恭)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일본서기(NI: 312 & 313)에 의하면, 한제이가 죽자 대신들이 회의를 해서 인교오에게 천황의 옥새를 바치기로 결정 했다고 한다. 한데 인교오는, 성년이 되어 갈때 질병을 알아 “보행을 잘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교오는 “나는 불운한 사람으로, 오래동안 증병을 앓았기 때문에 보행도 할수가 없다. . . . 내 앞의 두 천황(리추우와 한제이)은 나를 바보로 생각했고, 멸시 했었다. 이걸 당신 대신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 . . 그러니 다른 현명한 왕자를 선택해서 천황으로 세우도록 하라”고 말하면서, 대신들의 제의를 거절 했다고 한다. 그 결과 왕위는 “어려해 여러달 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었고, 대신들과 관리들은 걱정에 싸여 어찌할 줄 몰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결국에 가서 대신들은 인교오에게 다시 한번 왕위에 오를 것을 건의

했고(NI: 314), 이번에는 그가 그들의 제의를 받아들여 제위에 올랐다고 한다. 그로부터 이년이 지나(NI: 315), “용한 의사를 구하기 위해 신라에 사신이 보내 졌는데 . . . 그 의사가 신라로 부터 도착해, 곧바로 천황의 병을 치료하기 시작 하더니, 얼마 안되어 인교오의 병이 완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sup>41)</sup>

오오진, 닌토쿠, 리추우, 한제이 등과는 달리, 인교오는 신라의 왕실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 일본서기(NI: 325-326)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신라왕은 인교오가 (서기 453년?)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고 슬퍼했다. 그는 80척의 공물을 실은 배에, 80명의 온갖 악인(樂人)들을 태워 보냈다. 그들은 대마도에 도착해서 대곡(大哭)을 했다. 큐우슈우에 도착해서도 역시 크게 곡을 했다. 나니와 항구에 정박하고 나서는, 그들은 모두 소복을 하고, 모든 공물을 가지고, 또 각종의 악기를 연주하며, 나니와에서 수도를 향해 갔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고, 때로는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면서, 시신을 모셔놓은 궁궐에 도착했다.”<sup>42)</sup> 신라왕의 이와 같은 친족관계의 과시에도 불구하고, 인교오는 그의 왕세자에 의해 계승되지 못하고, 신라 왕족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신라에 적대적인 아나호(安康)에 의해 계승 되었다.

일본서기(NI: 326)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하고 있다: “신라 조문 사절들은 장례가 끝나자 귀국길에 올랐다. 당시 신라 사람들은, 경성(京城) 바로 옆에 있는 미미나시산(耳成山)과 우네비산(叡傍山)을 언제나 좋아했다. 따라서 그들은 고토비키 언덕에 도달했을 때, 돌아보면서 ‘우네메 하야’ ‘미미 하야’라고 소리쳤다. 이는

<sup>41)</sup>디글라스(1978)는 에드워드 키다가 한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즉 “(스진과 오오진 같은) 초기의 도래인들은 실제로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 건너 왔을 지 모른다. 하지만 5세기 말에서 부터 6세기초 사이의 말 장식품이나 사회 구조는, 키다 말에 의하면, 백제나 고구려의 것들보다 신라의 것들에 훨씬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번째 이주민들의 무리는 — 그 기마민족 — 신라에서 도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역사적 기록과 고고학의 물증이 혼연일치해서 이 결론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그들이 (당시 야마토 왜에서) 쓰고 있는 말에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是未習風俗之言語), ‘우네비’ 산을 ‘우네메’라고 부르고, ‘미미나시’ 산을 ‘미미’라고 불렀던 것이다.<sup>2</sup> 그때 신라 사람들을 따라 가던 야마토의 무마카이베(倭餉部) 사람들이, 이 소리들을 듣고서, 신라 사람들이 우네메(采女)와 통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했다. 그래서 그들은 신라 사람들을 다시 경성으로 데리고 가서, 오호하쯔세 왕자에게 자초지종을 일러 바쳤다. 왕자는 신라 사람들을 즉시 가두어 놓고 심문을 했다. 그러자 신라 사람들이 ‘우리는 우네메를 범한 적이 없다. 우리 얘기는 단지 경성 바로 옆에 있는 그 두개의 산을 사랑해서 한 말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다. 듣고 보니 무마카이베 사람들 얘기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라인들을 모두 다시 돌려 보냈다. 하지만 이일로 말미암아 신라 사람들은 크게 한을 품게 되었다.”<sup>22</sup>

일본서기(NI: 323-324)에 의하면, “키나시 카루 왕자가 태자로 봉해졌으나, 그는 같은 배에서 난 누이 동생을 유혹 했다고” 비난을 받았다 한다. 일본서기(NI: 328)는 또 “태자가 포악한 짓을 하고, 부녀자를 유혹했기 때문에 나라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고, 신하들이 그를 따르지 않았을 뿐아니라, 한사람도 빠짐없이 아나호 황자(안코오)를 지지했다”고 기록했다. 아나호 황자의 어머니는 오오진의 천손녀 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서기(NI: 328-329)에 의하면 태자가 아나호 황자를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오히려

<sup>22</sup>이 얘기는, 당시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서로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단지 “일상 쓰고 있는 말에 익숙해 지는 것”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오노(1962)에 의하면, 조오론 시대 서부 일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폴리네시아 언어와 같은 음운 조직을 가진 남방계의 것 이었었는데, 야요이 문화와 함께 알타이 (즉, 한국) 계통 언어의 문법구조와 모음조화를 가진 언어가 도입되어, 북부 큐슈우로부터 동쪽으로 전파 되었다고 한다. 오오노(1962)는 문법상으로 일본어는 중국어와는 크게 다르지만, “한국어와는 고대의 모음조화 사용법을 포함해서 문법상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약200여개의 어근을 공유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나호(안코오)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태자가 오호마에 대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sup>63)</sup>

안코오(安康)는 분명히 오오진 황족의 직계였다. 따라서 인고오가 죽자, 안코오와 그의 지원세력은, 신라의 조문 사절이 우네메와 모의해서 태자 키나시 카루로 묘사된 신라계 왕을 세우려 할까 두려워 했던것이 분명하다.

킬레이(1973)는 고사기와 일본서기 모두가 “리추우와 한제이 사이의 형제관계를 강조 하지만, 인고오의 계승은 이 두 선임 왕들과 무관한것 같이 다루고 있다. . . . 그리고 유송의 역사책(宋書)이 『왜의 다섯왕』의 계보 관계를 설명할때, 인고오에 틀림없는 왜왕제(濟, 사이)와 그의 전임 두 왕들과의 아무런 친족관계도 언급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sup>3)</sup>

코벨부부(1984: 25-31)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오진(應神)은 4세기말부터 서기 510년까지, 일본의 왕좌를 차지 했던 기마 민족 혈통을 가진 열명의 천황 가계의 첫번째 존재였다. 그후에는 이질적인 후보자가 왕위에 올랐다. 그는 기마 정복자와 야요이 시대에 한국에서 이주한 신도(神道)세력 양쪽의 피가 섞인 후손이었다. . . . 백제는 분명히 일본의 새로운 통치자들에 대해 일종의 종주국으로서, 우호를 공고히 하기위해 일본열도에 물건들과 사람들을 보내 주었다. . . 새로운 왕가의 첫번째 공식적 지배자로서 오오진의 분묘는, 옛적 석기시대로 부터 내려오는 원주민들을 복속시켜, 권위를 세우고 또 그의 왕조를 영속시키기 위해서도, 그 모양이 호화찬란 했어야만 했다. 토착 수장들은 협력의 대가로, 그들의 영지를 새삼 공식적으로 다시 하사 받았다. . . 후세의 조정관리들은 그와 같은 분묘들이 외래 정복자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다. 때로는 그 가지가 좀 멀리 벗어 나기도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오오진 계통이 상당히 오래동안 왕위를 차지했던 것

<sup>3)</sup>일본서기(NI: 328)에 의하면 아나호(安康)는 인고오의 둘째 아들이며, 그의 생모는 호무다(應神)의 친손녀 였다.

이다.”<sup>4</sup>

서기 672년에 텐지(天智, 재위 661-671년)의 동생인 오오아마(大海人) 왕자가 그의 조카인 고오분(弘文, 재위 671-672년)을 쫓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텐무(天武, 재위 672-686년)로 알려진 통치자가 되었다. 이 당시의 기간을 진신의 난(壬申의亂) 때라고 부른다. 그후 텐무계가 한세기 동안 왕위를 장악했다. 하지만 고오닌(光仁, 재위 770-781년)이 쇼오토쿠(稱徳, 재위 764-770년)를 계승했다는 것은, 텐무계가 왕위를 영구히 상실하고, 텐지계가 다시 복권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오닌은 감무(桓武, 재위 781-806년)에 의해 계승되었는데, 그는 서기 794년에 수도를 나라(奈良, 헤이조오쿄오, 平城京)로 부터 쿄오토(京都, 헤이안쿄오, 平安京)로 옮겨, 1869년까지 천황들의 거처가 되었다. 토비(1985)는 감무의 어머니가 “백제 이주민의 후예”였으며, 감무는 “고오닌을 왕위에 오르게 만든 후지와라족 가운데 지지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토비(1985)에 의하면, 감무는 수도를 “야마토의 텐무계 세력권으로 부터 멀리 떨어진 야마시로(山城)지역의 중심부로 옮겼는데, 그곳은 감무의 외가 쪽이 자리잡고 있는, 백제 이주민들의 본거지였다”는 것이다.<sup>5</sup> 김정학(金廷鶴, 1981: 6)은 감무의 모친(고오닌의 처)이 백제 무녕

<sup>4</sup>오오바야시(1977)에 의하면, 일본신화의 근원들을 연구하는데 하나의 제약이 되는 것은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기록된 일본의 신화들이, 천황족과 또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씨족들 내부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얘기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 사서에 보존되어 있는 신화들이란, 당시 일본열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 축적된 전체 신화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만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의 통치자들과 관계가 없는 지방의 일반 백성들에 관련된 신화들은,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제대로 수록이 안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인 것이다. 즉, 공식적으로 기록된 신화들이란, 주로 외래 정복자들에 관한 것들 뿐이라는 것이다.

<sup>5</sup>토비(1985)는 “텐무계가 야마토 분지에서 한세기에 걸쳐 절대적인 정치세력을 휘둘렀는데도 불구하고, 텐지계는 야마시로 지방과 강한 일체감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왕(武寧王, 재위 501-523년)의 아들인 순타 태자(純陀太子)의 후손이라고 말한다.